

[사회]

주요대 올 내신반영률 20%선

고려대·한양대 '차등적용제'로 보완 서울대·단국대 등은 50% 적용 결정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의 단계적 확대에 합의하면서 주요 사립대들의 내신 실질 반영비율이 어떻게 결정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실질반영비율 20% 안팎=고려대는 실질 반영비율을 지난해에 비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릴 것을 시사한 가운데 실질 반영비율을 20% 선으로 잠정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도 "입시 당사자들에게 모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지만 10~30%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 내신 차등적용제로 '보완'=고려대는 내신 차등적용제를 올해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려대가 지난 2월 언급한 바 있는 내신 차등적용제는 500여 개 고교 내신의 과목별 표준편차를 조사해 표준편차가 작은 과목은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표준편차가 큰 과목은 변별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학생들의 등급을 조정하는 제도다.

한양대 역시 내신 등급에 따른 점수 배분과 대학 자체 환산점수를 통한 점수 배분 등 2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 가운데 내신 차등적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 '이직 모르겠다' vs '교육부안 적극 수용'=하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타 대학의 움직임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반영비율을 책정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저물릴하고 있다.

반면 국립대인 서울대와 중위권 사립대들은 교육부의 방침을 수용한 실질 반영비율을 내놓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 4월 발표한 입시안에 따라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을 50%(교과 40%, 비교과 10%)에 맞추기로 결정한 상태다.

단국대는 가운에 60%, 나군에 40%를 적용해 평균 50%의 실질 반영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으며, 건국대도 수시 1학기 전형에서 실질 반영비율을 50%로 맞추는 한편 정시에서도 이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도 실질 반영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수능·논술 기본점수 부여 내신 실질반영률 높여야”

교육부는 '내신 갈등' 사태와 관련, 일부 사립대를 비롯한 대학측이 내신 반영비율 산출 공식에 따라 수능과 논술에 기본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내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수능과 논술에 기본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택하든지, 학생부 기본 점수를 낮추는 방식을 채택하든지 간에 올해 내신 반영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학측이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신 기본점수를 크게 낮추는 방식이면 내신 반영비율을 높이는 것이 어렵다"며 수능과 논술에서 기본 점수를 부여해 '사회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대학측이 내신 반영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대교협 회장이던 조한진 회장을 통해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내신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합

의한 데 대해 대학측이 '수능과 논술의 기본점수 부여' 방안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내신 반영비율 산출 공식에 따르면 내신 기본점수만 490점을 부여할 경우 내신 실질 반영비율은 (500-490)/(1000-490)×100으로 계산해 약 2%에 불과하다.

내신 기본점수만을 400점으로 낮추게 되면 내신 실질반영률은 (500-400)/(1000-400)×100으로 계산해 16.6%로 크게 높아진다.

교육부는 당초 내신 기본점수 400점에 이하고 비슷한 비율로 수능 최저점 300, 논술 기본점수 80점을 부여하게 되면 (500-400)/(1000-400-300-80)×100으로 계산해 내신 반영비율이 45%까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내신 기본점수 400점에 다 수능 최저점 80점, 논술 기본점수 20점 정도만 부여해도 (500-400)/(1000-400-80-20)×100으로 계산해 내신 반영비율이 20%에 이르게 된다. /연합뉴스

교육부 기본 방침 불변

대학에 내신 확대 요구

문화재관람료 시비 범정으로 가나

조계종 '자연공원법' 현소 제기키로

올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불거진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불교 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위원장 현승 해인사 주지)는 5일 "문화재관람료 시비는 국가가 전통사찰 경내지를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과잉된 사안"이라며 "전통사찰 경내지에서 사찰의 동의 없이 지정운영하고 있는 탐방로(등산로), 야영장, 주차장 등 국립공원시설은 불법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을 원상 회복하지 않으면 관련 당국에 보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입장료 폐지 이후 '국립공원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입니다'라는 현소막을 내걸어

마치 공원구역의 산이 국유지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사찰의 동의 없이 경내지를 관리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여서 '자연공원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종 측은 "일제의 수탈과 전쟁의 와중에 불교문화재와 출중한 사찰지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승려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보존된 불교문화재와 사찰림은 국가문화재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증·개축이나 개발, 양도 등을 못하도록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으므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각종 규제를 감수하면서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적법하고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한열 열사 흉상 제막 모교 진흥고 대강당 앞에

고(故) 이한열 열사의 흉상(胸像)이 5일 모교인 광주 진흥고등학교 대강당 앞에 세워졌다.

광주 진흥고 총동창회는 이날 오전 11시 모교에서 고(故)이한열 열사 '추모식 및 흉상제막식'을 가졌다. 제막식에는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이충호 진흥고등학교장과 양해인 총동창회장, 이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 등 내·외빈 200명이 참석했다.

이 열사의 흉상(높이 85cm)은 고인의 얼굴을 새긴 청동으로 제작됐으며, 높이 80cm·폭 60cm의 좌대(座臺) 위에 놓여졌다. 추모사와 약력을 담은 비문은 흉상 뒤편 좌대에 새 놓았으며, 흉상의 전면에는 '민주열사 이한열'이라 새겨넣었다.

비문에는 '안타깝고 서글픈 날들을 잠재우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열마중의 허세와 위선의 탈을 벗어버리며.. 모든 진흥인의 이름으로 고 이 열사의 거룩한 희생과 정신을 계승합니다'라고 새겼다.

이 흉상은 진흥고 총동창회 등에서 모은 성금 2천만원으로 건립됐으며, 제작은 조각가 정화민씨가 맡았다.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이 열사는 지난 1987년 6월9일 연세대학교 교문 앞에서 민주화 투쟁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 달 뒤 숨졌다.

/조충현 기자 golee@kwangju.co.kr



5일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광주 진흥고등학교에서 열린 '고(故) 이한열 열사 추모식 및 흉상 제막식'. 흉상 제막식이 끝난 뒤 배은심 여사가 이들의 흉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7월 6일 (음 5월 22일) ◇전국날씨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겠다.

광주	흐리고 가끔 비	21~25℃
주요도시	흐리고 가끔 비	20~24℃
안동	흐리고 가끔 비	20~23℃
부산	흐리고 가끔 비	21~24℃
대구	흐리고 가끔 비	20~26℃
대전	흐리고 가끔 비	21~24℃
전주	흐리고 가끔 비	21~24℃
충주	흐리고 가끔 비	20~23℃
청주	흐리고 가끔 비	20~25℃
포항	흐리고 가끔 비	20~25℃
울릉도	흐리고 가끔 비	21~25℃
독도	흐리고 가끔 비	20~26℃
제주	흐리고 가끔 비	19~22℃

서울=남동~남서풍 과고 1.0~2.0m
부산=남동~남서풍 과고 1.5~2.5m
남해=남동~남서풍 과고 1.0~2.0m
안남=남동~남서풍 과고 1.0~2.0m
목포 밀물 < 06:04 썰물 < 11:25
여수 밀물 < 00:43 썰물 < 06:57

▲해돋이 05:24 ▲해질 19:50 ▲달돋이 23:28 ▲달짐 11:0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7(토)	8(일)	9(월)	10(화)	11(수)	12(목)
날씨						
최저/최고	22/27	21/29	21/26	22/26	22/28	21/29

장마전선 북상... 오늘 10~50mm 비

해안지방 천둥·번개

소강상태를 보이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6일 광주·전남지역에 10~50mm의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

다"며 "아침에는 곳에 따라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으나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또 "전남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9일까지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오겠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교수님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연세대 학생회 '교직원 살생부' 작성

대학 재학생들이 학기마다 교수, 시간강사, 직원의 수업과 서비스 실적을 평가해 퇴출 대상자 명부를 발표하기로 해 주목된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총학생회장 권태산씨는 "수업과 서비스 부실문제가 지속되면 미래는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원주캠퍼스 총학생회는 2학기부터 전임교수 3%, 시간강사 3%, 직원 3%에 대한 퇴출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권 회장은 "이유 없는 휴강, 3시간 수업인데 2시간 20분만 수업,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는 행위,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수

업내용, 교과과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 수많은 문제들이 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꺾고 있다"며 퇴출명부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학생회는 퇴출명단 작성을 위해 수업마다 감시요원을 3명씩 배치해 교수와 교사·수업일수·수업시간에 근거로 여부와 성실도도 평가해 교원들의 점수를 매길 계획이다. 또 재학생 8천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직원에 대해서도 친절 및 성실, 학교 발전에 대한 열의 등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을 곧 마련해 평가에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7월 2일 학점요약정리 + 단원문제풀이 첫전도 개강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본원 ☎ 227-8003 (7·9도청 전 원영빌딩 위)

첨단점 ☎ 971-0002 (한인캐리비안빌딩 8층 빅마트 점점점 옆 광주은행 4F)

광양점 ☎ 795-0990 (한인캐리비안빌딩 8층)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 모집과정
▶ 공인중개사 12개월~1년 시험일: 10월28일
▶ 주택관리사 12개월~1년 시험일: 10월21일
▶ 주택관리사 2차(회계포화) 주말반토일 시험일: 10월21일

● 모집대상
▶ 졸업도중 또는 졸업후 1년 이내에 이직할 예정인 분
▶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인 분 40세 이상인 분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분 단서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 기타사항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시험준비 지원
▶ 수료후 100~80% 환급

● 접수
▶ 수강료: 훈련생당→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 수업시간
▶ 월수업 19:00~21:00(기초) ▶ 화수업 19:00~21:00(기초)

●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 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 224-4560, 232-1088

7·9 공무원 대특강

행정직, 교무직, 세무직, 관세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복지직, 전산직, 소방직, 토목직, 건축직

시행내역: ※전남행정직: 10월 13일 7급 22명 9급 193명 확정
※전남교육행정직: 올 하반기 1000명 시험 예정
※전북차 9급행정직 109명 8월 8일 시험

개강 7월 9일 주·야간 모집 (현재 예약 접수중)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위) (충원초교 후문)

www.mdgsoi.co.kr ☎ 222-4560

삼성빌딩 임대

충/별/안/내

★ 대형주차장 완비
★ 병·의원 입주시 임대료 완류시 30% 할인
★ 재개발지역 확정, 투자가치 높음
★ 1층 33평(의류,약국,서점 등)

7F 사무실
6F 146평(분할) 병·의원 사무실
5F 146평(분할) 병·의원 사무실
4F 146평(분할) 병·의원 사무실
3F 146평(분할) 병·의원 사무실
2F 남양알로에
1F LG빌리움 | 임대 33평 | 골프클럽

관리사무실 | (062)526-3140 H.P 010-8285-3170

여름방학 편입대특강

김영선 PMS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위)

개강: 7월 11일 ~ 8월 25일 2차·7명

올해도 역시! 거침없는 합격률!!

경희대(서울) 17명 합격, 고려대(한양) 20명 합격, 서울대 10명 합격, 삼육대 27명 합격, 중앙대 28명 합격, 단국대 28명 합격, 한양대 35명 합격, 한양대 35명 합격, 한양대 35명 합격, 한양대 35명 합격

역시! 김성! 중앙대 102명 중 67명, 한양대 185명 중 137명

www.kimyoung.co.kr
그동안 김영선 13만여명 합격

☎ 227-8088